

# 201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논술시험 해설

<목 차>

1. 2017학년도 논술시험 출제의도
2. 인문계열 1회차 해설
3. 인문계열 2회차 해설
4. 인문계열 3회차 해설
5. 자연계열 해설

문항 해설에는 제시문 출처,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답안구성요소,  
모범답안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 2017학년도

# 논술시험 출제의도

최근의 대학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현대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공 및 교양 교육에서 폭넓은 사고력에 바탕을 둔 원활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은 이러한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초적 자질로서의 정확한 독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설득력 있는 표현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능력과 창의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논술시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2007년부터 시행된 통합논술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따른다. 교과지식의 단순 반복학습과 암기를 통해 습득된 지식을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와 토론을 통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연계와 인문계 지원자 모두 답해야 하는 공통논술은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글로 제시문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자연계의 제시문도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리나 자연현상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노력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는 문제를 구성하여, 실제 공교육의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문제나 보편적인 인간상황에 적용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문제의 특성상 주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제시문을 채택하였지만, 제시문의 핵심요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고려하였다. 출제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너무 생소하거나 어려운 지문보다는 정상적으로 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선정하였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유형과 학문영역의 텍스트들이 일관성 있는 주제나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 수험생들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구성했다. 또한 논술시험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제시문과 제시문, 제시문과 논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논제의 표현을 정밀하게 함으로써, 논술능력의 합리적 평가와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논술시험은 공통문항과 인문계 및 자연계의 계열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지원자들은 계열에 따라 공통문항과 인문계 계열문항, 또는 공통문항과 자연계 계열문항을 풀게 되어 있다. 공통문항과 인문계 계열문항은 각각 3개의 제시문과 1개의 논제로 이루어졌다. 자연계 계열문항은 3개의 제시문과 3개의 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논술은 인문계와 자연계를 아우르는 통합논술의 취지를 살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별한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인문계 논술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발췌한 다양한 텍스트의 의미를 그 고유한 방식에 따라 이해하는 능력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논술에서는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연계 논술은 자연과학의 언어라 할 수 있는 수학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수학적 풀이 과정과 자연과학적 탐구과정을 연계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려 하였다. 제시문에서 다루어지는 수학 관련 내용은 고등학교 공통수학 수준의 수리능력을 지닌 학생이라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1.

**2017학년도**

**인문계열 1회차 해설**

---

## [1회차 공통문항]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이희진, 『정보기술은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13~15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가>는 '정보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시간 개념을 기술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밤과 낮이라는 자연적 시간 차이조차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그 사례로 세계적인 시계업체 스와치가 스위스 빌(Biel) 시간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시간을 일치시키려고 시도하는 빌 표준시(BMT: Biel Mean Time)를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의 데이터양에서 착상한 이 시간을 전세계인이 공유하게 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가 전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각기 차이가 난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빌 표준시는 전세계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제시문 <나> : 토마스 데 파도바, 『라이프니츠, 뉴턴 그리고 시간의 발명』**  
(박규호 옮김, 은행나무, 2016년, 151~152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나>는 근대적 시간 개념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시계가 출현하게 되어, 하루가 24시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시간은 인간 모두에게 해당하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게다가 분 단위까지 측정하는 시계가 출현한다는 것은 근대적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즉 청교도들에게 시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재화이기엔 단 일 분, 일 초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강박 관념을 낳게 되며, 자명종이나 시간표 등 규칙적인 생활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시간 개념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도시인에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감각을 낳게 되었다.

**제시문 <다> : 한병철, 『시간의 향기』**  
(문학과지성사, 2013년, 46~66쪽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즉 근대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어지는 시기의 '절대적 시간' 개념을 시간의 '가속화'와 '탈시간화'로 설명하고 있다. 철도, 비행기 등 근대적 기계문명이 공간의 축소, 시간의 단축을 의미했다면, 그 과학문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인터넷은 이윽고 물리적 차원의 공간 소멸을 가져왔다. 또한 전세계인이 단일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시간 개념의 상실, 탈시간화를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가속화와 탈시간화를 물리적 운동과 인간적 경험을 연결지어 설명한다. 이러한 근대 문명의 수렴 형태는 인류에게 속도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미지의 영역이 개척되고,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상으로는 시간 감각의 교란이 생겨 '경험'으로서 축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개념적으로 시작과 변화, 끝과 같은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없기에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경험으로 남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절대 시간' 개념에 저항하여, 개인마다 다른 시간, 개인마다 다른 서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 [1회차 공통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

시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 순간에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쫓기는 느낌을 받는다면 왜 그런 것일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일까? 과거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시간'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문들을 제시하여, 제시문 간의 내적 연관성을 도출함으로써, 답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 논제의 구성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 저자의 입장에서 그 공통점에 대해 비판하시오. (단, <참고문>을 활용할 것) (1,000±100자)

제시문 <가>, <나>, <다>, <참고문>은 모두 '시간' 개념에 대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가>와 <나>는 각각 정보화 사회와 근대의 '절대 시간'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제시문 <다>와 <참고문>은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문제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후, <다> 저자의 입장에서 그 공통점에 대해 비판해 보라는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정보화 시대와 근대적 '절대 시간'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후, 상대적 시간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한 절대적 시간 개념을 비판하라는 것이다. 문제 도출의 방향은 비교적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방향 자체를 혼동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도출하여 자신의 이해된 말로 풀이하기는 다소 난위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 시간'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적 보편시는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흘러간다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하나의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정교한 시간 관리가 중시되며, 그렇기에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부가적이기는 하나, <가>와 <나>는 새로운 시간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논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다.

<가>와 <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나>는 보편시로서 근대적 시간 개념이고, <가>는 인터넷 시간으로서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보편시는 절대 시간이기도 하나 여전히 자정과 정오를 가진다, 즉 낮과 밤이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자전에 따르는 시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시간은 이러한 시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의 리듬에 따르지 않는다. 또한 보편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반해,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사용하여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시간이다.

<다> 지문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시간과 시간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시간은 경험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그 경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즉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영역에서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뉴턴의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자연계의 시간이 관찰자의 위치나 속도에 따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슬로라이프'의 주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다. 다만 참고문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와 <참고문>의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적 시간 개념은 비판될 수 있다. 우선 <나>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절대 시간은 일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의 시간으로서 발전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조차 시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의 주장은 시간이 관찰자가 위치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무시한 극단적인 절대 시간일 뿐이다. '일출과 일몰'이라는 자연적 시간, 그에 연동하는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상실하여 의미로 발전하지 않고 결코 경험으로 축적될 수 없다.

시간의 상대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가>, <나>, <다>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 식의 <나>의 시간과 정보화 시대 <가>의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개개인에 따라 경험치가 다른 <다>의 시간이 모두 공존하고 모두 필요한 것이다.

# [1회차 공통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① <가>와 <나>의 공통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가>와 <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 시간'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적 보편시는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흘러간다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하나의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는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정교한 시간 관리가 중시되며, 그렇기에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부가적이기는 하나, <가>와 <나>는 새로운 시간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논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다.

② <가>와 <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보편시로서 근대적 시간 개념이고, <가>는 인터넷 시간으로서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보편시는 절대 시간이기도 하나 여전히 자정과 정오를 가진다, 즉 낮과 밤이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자전에 따르는 시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시간은 이러한 시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의 리듬에 따르지 않는다. 또한 보편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반해, 인터넷 시간은 전세계인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사용하여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시간이다.

③ <다>와 <참고문>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있는가?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시간과 시간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시간은 경험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그 경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즉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영역에서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슬로라이프' 주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다. 다만 참고문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④ <다> 저자의 입장에서 '절대 시간'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가?

<다>와 <참고문>의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적 시간 개념은 비판될 수 있다. 우선 <나>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절대 시간은 일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의 시간으로서 발전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조차 시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의 주장은 시간이 관찰자가 위치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무시한 극단적인 절대 시간일 뿐이다. '일출과 일몰'이라는 자연적 시간, 그에 연동하는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상실하여 의미로 발전하지 않고 결국 경험으로 축적될 수 없다.

## [1회차 공통문항] 예시 답안

### 예시 답안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시간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나>에서 말하는 시간은 근대적 시간이다. 분 단위를 측정하는 정교한 시계가 개발됨으로써 노동 시간을 비롯한 인간 생활이 시간에 얽매이고 더욱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가>는 스와치 타임을 예로 들어, 정보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시간, 즉 전 세계인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점은 절대 시간, 시간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이며, 새로운 시간 체계가 나타난 시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나>가 일출과 일몰의 자연적 시간인데 비해, <가>는 그것마저도 초월하여 전세계인 모든 장소의 모두에게 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다.

<다>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시간과 시간의 가속화에 반대하여, 시간은 경험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그 경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즉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영역에서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뉴턴의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다>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슬로라이프'의 주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다. 다만 참고문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에서 주장하는 근대적 절대 시간은 일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의 시간으로서 발전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조차 시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가>의 주장은 시간이 관찰자가 위치한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무시한 극단적인 절대 시간일 뿐이다. '일출과 일몰'이라는 자연적 시간, 그에 연동하는 인간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상실하여 의미로 발전하지 않고 결코 경험으로 축적될 수 없다.

시간의 상대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가>, <나>, <다>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계발서 식의 <나>의 시간과 정보화 시대 <가>의 시간은 일의 시간으로서, 개개인에 따라 경험치가 다른 <다>의 시간이 모두 공존하고 모두 필요한 것이다.

## [1회차 계열문항] 제시문 요지

### 제시문 <가> : 기형도, 「늙은 사람」(『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에서 발췌 후 재구성)

<가>에 제시된 「늙은 사람」은 요절한 시인 기형도의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에 실린 작품이다. 기형도 시 세계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문제화하였다는 점이다. <가>에 제시된 '늙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노인'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부정적인 시선을 통해 형상화한 시이다. 시적 화자 '나'는 '등나무 그늘 속에 웅크린' 채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이는 '늙은 사람' 곧 '노인'을, '틈입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늙은 사람'이 시적 화자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까닭은, '짧은 바지'와 '벌어진 입', '허영게 센 정신' 등이 시사하듯, 육체적으로 쇠퇴하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데 있다. 이런 노인의 이미지는 '늙은 사람'이 '탐욕스런 눈빛'으로 시적 '나'의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과 대비된다. 이와 같이 '늙은 사람'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태도는 단호하다. '나'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틈입'을 허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나'의 세계에는 이미 '그'가 추방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세계 또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나'에게 '늙은 사람'은 '죽음'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4연의 내용이 시사하듯, 역설적으로 '나'와 '늙은 사람'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그를 알아차리는 순간, 죽음은 너무도 쉽게 가까이 내 곁에 있음을 '나'는 깨닫는다. 이런 점에서 '늙은 사람'은 죽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 '나'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늙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혐오의 시선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스며들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 제시문 <나> : 키케로, 키케로의 노년에 대하여 (정영훈 편역, 소울메이트, 2016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나>는 '노년'과 '죽음' 두 개의 화두를 성찰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 C.)의 『노년에 관하여』에서 발췌 구성한 글이다. <나>에서는 '노년' 혹은 '늙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나>는 노년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늙는다고 해서 모두 비참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노년의 장점이 <나>에 서술된다. 노인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 분별력과 이성을 갖추었고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라는 것, 노인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자연의 이치에 걸맞는 조화로운 것이라는 점 등을 노년의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시문 <다> : 강상중, 고민하는 힘 (이경덕 역, 사계절, 2009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다>는 강상중의 『고민하는 힘』 가운데 「늙어서 '최강'이 되라」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노인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글이다. <다>에 따르면, 노인은 오늘날 '사회의 규범에서 밀려난' 존재이지만, 생산성과 효율,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교란하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피라미드 형태로 인구가 구성된 과거와 달리, 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오늘날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분별력' 있는 존재일 수 없다. 오히려 '분별없는' 노인이 늘어난 까닭에 노인은 '젊음'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운용되는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다>의 저자는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다>의 저자는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1회차 계열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

1회차 인문계열 논술의 주제는 '노년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를 일컬어 '고령화 사회'라 한다. 그리고 멀지 않아 '고령화'의 단계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늘어났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사회적 위상은 그에 걸맞게 높아지진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하다. 여전히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젊음, 유용성, 생산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회 구조가 낳은 노인에 대한 정형화된 의식 또한 그와 같은 불균형한 상황을 심화시키는 데 한몫 거 들고 있다. 노인은 여전히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한 존재 아니면 '분별력' 있는 '원숙'한 지혜의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이 과연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로 나아가는 오늘날 상황에서 타당한 것인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1회차 인문계열 논술 제시문은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의미'에 대해 성찰적 접근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문학, 철학, 사회 영역의 텍스트 등에서 선별하였다. 논제는 '노년'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적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의미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까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 논제의 구성

논제는 '노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두 개의 대조되는 통념을 보여주는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고, 고령화 사회의 시대에서 '노인'이 갖는 의미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통념적 인식을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제는 다음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에 대해 비교하십시오.

둘째,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가>와 <나>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통념을 각각 비판하십시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단계의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셋째, <다>의 논지를 파악한다.

넷째,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을 비판한다.

# [1회차 계열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논제가 요구하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의 파악

둘째,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셋째, <다>의 논지를 파악

넷째, <다>의 논지에 근거한 <가>와 <나>의 '노년' 인식에 대한 비판

■ 이 논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답안 구성 요소별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① <가>와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

(1) <가>의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노년'에 대한 인식

- 시적 화자 '나'는 '등나무 그늘 속에 웅크린' 채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이는 '늙은 사람' 곧 '노인'을 '틈입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봄
- 시적 화자는, '짧은 바지'와 '벌어진 입', '허영게 센 정신' 등이 시사하듯, '늙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쇠퇴하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
- '탐욕스런 눈빛'으로 '그(=늙은 사람)'가 응시하는 시적 화자 '나'의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과 대비됨
- 시적 화자에게 '늙은 사람'은 '죽음'의 의미로 인식됨
- 4연의 내용이 시사하듯, 역설적으로 '나'와 '늙은 사람'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음. 그를 알아차리는 순간, 죽음은 너무도 쉽게 가까이 내 곁에 있음을 '나'는 깨달음. 따라서 죽음의 표상인 '늙은 사람'은 '나'의 내면을 투명한 존재.

(2) <나>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인식

- 노년은 모두 비참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
- 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
- 노년은 분별력과 이성을 갖추었고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
- 노인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자연의 이치에 걸맞은 조화로운 원숙한 존재

### ②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1) 공통점

-<가>와 <나>는 노년을 문제화하고 있다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저자는 모두 노년을 죽음을 앞 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2) 차이점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저자는 노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여준다. <가>의 시적 화자가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나>의 저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가>의 시적 화자 '나'는 '늙은 사람'을 혐오의 시선으로 응시한다. 노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의 '세계에 침을 뱉'으며 그의 '틈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노인과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있다.

-<나>의 저자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반박하며 그들의 장점을 서술하고 있다. <나>에 따르면 노인은 분별력과 이성을 갖춘 존재로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곧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노인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보다 자연의 이치에 맞는 조화로운 것이라 하면서 늙는 것이 비참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③ <다>의 논지를 파악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존재 의미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노인은 '생산성과 효율,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서 밀려난 존재이다. 피라미드 형태로 인구가 구성된 과거와 달리, 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오늘날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분별력' 있는 존재일 수 없다. 오히려 '분별없는' 노인이 늘어난 까닭에 노인은 '젊음'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운용되는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다>에서는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④ <다>의 논지에 근거한 <가>와 <나>의 '노년'에 대한 인식 비판

#### (1) <다>의 논지에 바탕한 <가>의 시적 화자가 보이는 노년 인식 비판

<다>에서는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적인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은 '사회의 규범에서 밀려난' 소외된 주변부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규제'에서 벗어나 무한한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교란하는 힘'을 지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저자 자신 '노년'에 대하여 '쇠퇴'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가>의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노인은 더 이상 육체적·정신적으로 '쇠퇴'한 혐오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 (2) <다>의 논지에 바탕한 <나>의 저자가 보이는 노년 인식 비판

또한 <다>에서 '분별없는' 노인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인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나>의 저자가 예찬하고 것처럼 노인은 '분별력'과 '지혜'로써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원숙'한 존재인 것만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같이 노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고 보거나 <나>와 같이 '분별력'과 '지혜'를 지닌 권위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노인에 대한 두 가지 정형화된 통념이라 비판할 수 있다.

---

## [1회차 계열문항] 예시 답안

###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노년을 공히 죽음을 목적에 둔 시기로 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여준다. <가>의 시적 화자는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는 노인을 혐오의 시선으로 응시한다. 노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의 '틈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절대적 거리를 둔다. 이와 달리 <나>의 저자는 노인들의 장점을 예찬하고 있다. 노인은 분별력과 이성을 갖춘 원숙한 존재로 국가를 지탱하는 원로이다. 따라서 노인의 죽음은 자연의 이치에 맞는 조화로운 것이기에 늙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고 <나>의 저자는 주장한다.

<다>는 고령화 시대 노년의 의미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노인은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서 밀려난 존재이다. 그러나 '분별 없는' 노인의 수가 늘어난 오늘날 노인은 '생산성과 효율, 젊음과 유용성' 중심의 '젊음'에 가치를 두고 운용되는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를 근거로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이 주변부적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규제'에서 벗어나 무한한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교란하는 힘'을 지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다>의 논지에서 볼 때, <가>의 시적 화자의 인식처럼 노인은 더 이상 육체적·정신적으로 '쇠퇴'한 존재일 수만은 없다. 또한 <다>에서 '분별없는' 노인이 대량으로 존재하므로 노인이 과거처럼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나>의 저자가 예찬하듯 노인은 '분별력'과 '지혜'로써 공동체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원숙'한 존재도 아니다.

따라서 <가>와 같이 노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고 보는 입장, <나>와 같이 '분별력'과 '지혜'를 지닌 권위의 존재로 보는 입장 모두 고령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노인에 대한 두 가지 정형화된 통념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2.

**2017학년도**

**인문계열 2회차 해설**

---

## [2회차 공통문항] 제시문 요지

### 제시문 <가> :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발췌)

제시문 <가>는 GDP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불합리한 모순에 대하여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GDP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GDP 속에는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모두 부기 상 긍정적인 것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면 알콜, 마약, 외설물 등과 대기가 나빠져서 그 반대급부로 성장하게 되는 감기약, 마스크, 전구, 안경 등의 지출 증가도 그것이 시장의 상품으로 소비되는 한 GDP성장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GDP가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진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 제시문 <나> : 조승헌, 『99%가 행복해지는 정치』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적 여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다르게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 서술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행복이란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적 가치관인데, 왜냐하면 외부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내적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건강, 성격 등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후천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 제시문 <다> : 「한겨레21」 (2016, 5월 제 1110호에서 발췌)

제시문 <다>는 '행복 없는 사회, 경제'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서술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한국은 적지 않은 GDP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에 있어서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58위이며, UN보고서 기준 29위(그림 1)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림 2)가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림 2)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삶에 있어서 특히 불행하게 느끼는 부분은 공동체적 결합과 소득, 삶의 만족도이다.

## [2회차 공통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

행복이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목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는 그렇게 증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이켜 봄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 할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것이 출제의 의도이다.

### 논제의 구성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왜 <다>(그림 1), [그림 2] 포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00±100자)**

위 문항은 첫째, 제시문 <가>와 <나>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며, 둘째, 제시문 <다>에 있는 내용과 그림을 분석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며, 마지막으로 제시된 조건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여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즉 창의적인 추론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 [2회차 공통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제시문 <가>와 <나>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가

둘째, 제시문 <다>에 나타난 현상을 그림을 포함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셋째, 제시문 <다>의 현상을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넷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답안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① 제시문 <가>의 요약

첫째, 사람들은 GDP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GDP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그 내용면에서 숫자에 의한 불합리성을 포함한다.

셋째, GDP는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그것이 시장의 상품으로 소비되는 한 모두 포함한다.

#### ② 제시문 <나>의 요약

첫째, 행복이란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다.

둘째, 외부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내적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관은 건강, 성격 등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후천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 ③ 제시문 <다>에서 제시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GDP를 갖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행복도를 보인다.

둘째, 특히 낮은 국민 행복도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는 공동체적 삶과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이다.

#### ④ 제시문 <가>와 <>의 논지를 활동하여 제시문 <다>의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GDP대비 국민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제시문 <가>가 말하듯이 GDP의 허구성이 일조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히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결함,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삶의 만족도 등에서 낮게 나오는 이유는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행복의 내적 요인인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공동체 의식의 부족 -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환경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환경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과 어울림이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결과임

삶의 만족도 - 성공 지향적 교육이 아닌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육 환경과 관련됨

## [2회차 공통문항] 예시답안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각기 GDP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불합리한 모순과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말한다. 먼저 <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GDP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GDP 속에는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알콜, 마약, 외설물 등과 같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 또한 시장의 상품으로 표시될 수 있는 한에서 모두 포함된다. 이것은 곧 GDP가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행복이란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적 가치관인데, 왜냐하면 외부 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내적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건강, 성격 등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후천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그림 포함)는 적지 않은 GDP(세계 11위)와 1인당 국민 소득(28위)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그림 2)가 보여주듯이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는 현저히 낮은 공동체적 결합과 소득의 불평등 및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계된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사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GDP에 비례해서 국민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제시문 <가>가 설명하고 있는 GDP의 허구성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GDP란 결코 삶의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림 1)에서처럼 높은 GDP와 그에 상응하는 높은 행복도를 보여주는 유럽의 나라들도 있다. 그것은 그들 국가의 국민계정 속에는 부정적 요소가 가능한 적게 포함되리라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특히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공동체적 삶과 소득 및 삶의 만족도 등에서 현저히 낮은 행복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의 부족하다는 것은 가치관의 구성요인 중 한국의 문화 환경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 환경이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지향적 교육이라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득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사회 환경이 상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회차 계열문항] 제시문 요지

### 제시문 <가> : 서경식,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혁명가의 생애」 ( 한겨레 , 2007.1.5.에서 발췌)

제시문 <가>는 재일 디아스포라 논객이자 에세이스트인 서경식 교수의 칼럼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러시아의 혁명가인 게르첸과 그 아들 알렉산드르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 간 단절문제를 재일 조선인 세대 사이의 단절과 겹쳐서 사유한다. 혁명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친 게르첸 세대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들 알렉산드르는 혁명 같은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세대에 해당한다. 서경식의 글은 이런 세대론적, 역사적 차이를 재일 조선인이 마주한 세대론적 갈등과 연결시킨다. '흐르는 잔혹성'으로 표현되는 세대론적 차이와 각자 세대가 마주한 역사적 체험의 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 않은 일종의 숙명적인 골레이자 문화사적 조건일 것이다.

### 제시문 <나> : 토마스 만, 「토니오 크뢰거」 (안삼환 역, 토니오 크뢰거, 민음사, 1998 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 토마스 만의 자전적 예술가 소설인 「토니오 크뢰거」를 발췌한 후에 재구성한 지문이다. <나>에는 소설의 주인공 토니오와 친구 한스 사이의 단절과 차이의 감각이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문학작품 읽기를 좋아하는 토니오와는 달리 친구 한스는 실러로 대변되는 문학에 관심이 없으며 말[馬]에 대한 그림보기를 좋아한다. 토니오가 아무리 저명하고 탁월한 작가가 되더라도, 그런 세계에 관심이 없는 한스에게는 토니오의 명성이 무관심의 대상이다. 서로 취향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토니오가 독백한바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다는구나”는 이러한 성향의 차이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토니오와 한스 사이에 존재하는 관심과 취향의 차이는 제시문 <가>와는 달리 역사적, 세대론적 문맥이 소거된 동년배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의 차이에 가깝다.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하고, 나와 타자 사이의 다름에 대해 사유하는 과정은 한 사람이 온전한 주체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통과제의(通過祭儀)라고 하겠다.

### 제시문 <다> :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 시간과 타자 , 문예출판사, 1996 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다>는 '타자의 철학'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을 해설한 강영안 교수의 저서 『시간과 타자』에 수록된 글 「레비나스의 철학」을 발췌·재구성한 글이다. <다>에서는 '타자'에 관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포섭될 수 없는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타자)은 내 삶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체와 타자 사이의 존재하는 차이를 흔쾌하게 인정하면서, 타자를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타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자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타자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할 수 있을 때, 각자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타자의 존재는, 주체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와 지평을 열어주는 소중한 등불이다.

## [2회차 계열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

- 인문계열 2회차 논술문제는 타인과의 소통, 차이와 단절을 그 중심주제로 삼고 있다. 나와 다른 타자의 생각, 가치관, 성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세우고 타자를 환대하는가를 지문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문제이다.
-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동년배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의견의 차이와 역사적 상황의 차이, 성향과 기질의 차이를 어떻게 서로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타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검증하고 파악하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 논제의 구성

2회차 인문계열 논술의 주제는 '타자와 주체', '소통과 단절'이다. 주체의 성숙, 곧 진정한 주체가 된다는 것은 타자와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타자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사유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한 주체는 자신의 고유한 개별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체의 성숙과정에서 타자와의 만남은 필수적인 통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의 세계관, 역사의식, 취향, 기질과 자신의 그것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한 주체는 그만의 고유한 개별성을 지닌 진정한 주체로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한 주체에게 있어서, 자기와 다른 타자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보는 과정은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탈피하여 세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주체의 성숙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타자와의 차이를 어떻게 자기 인식의 성숙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글쓰기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논제는 아래와 같다.

**<가>와 <나>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다>의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참조하여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 [2회차 계열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첫째, 답안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 2)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3)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가>와 <나>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 2) <다>에 드러난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도출하는 것
- 3) 2)에서 수행된 내용을 활용하여 <가>에 등장하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서술하는 것

■ 이 논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답안 구성 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리적이며 명료한 언어로 서술해야 한다.

▲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파악

1) 공통점

- 서로 간의 차이와 단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관심의 다양성과 상대성이 드러나 있다.
- 어떤 사람(세대)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타자에게는 대단히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표출되어 있다.

2) 차이점

- <가>에 드러난 차이는 역사적이며 세대론적 문맥이 개입되어 있다. 이에 비해 <나>에 드러난 차이는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 관심의 문제에서 연유한다. <나>에는 역사적인 문맥이 소거되어 있다.
- <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세대론적 문제이나, <나>는 동년배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가>는 차이를 발생한 원인과 그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현상에 대한 수동적인 추인과 묘사에 가깝다.

▲ <다>에서 제시된 '타자'에 관한 두 가지 논리 파악

1)

-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포섭될 수 없는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 상대방(타자)은 내 삶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주체와 타자 사이의 존재하는 차이를 흔쾌하게 인정하면서, 타자를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 타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자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서보아야 한다.
- 서로의 입장을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 타자는, 주체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와 지평을 열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

▲ <다>의 논리를 활용하여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함

1) <다>의 첫 번째 논지를 활용한 답 내용

- 아버지와 아들 세대는 서로의 차이점과 각자가 처해 있는 다른 역사적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상대방 세대가 내 삶의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관계라는 생각으로 타자(상대방)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2) <다>의 두 번째 논지를 활용한 답변 내용

-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의 입장에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열어주는 소중한 타자가 되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

## [2회차 계열문항] 예시답안

### 예시 답안

이 논제는 타인과의 소통, 차이와 단절을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혁명가이자 망명가인 게르첸 세대와 아들 세대 사이의 단절이 화두다. 모든 인생을 걸고 혁명에 투신한 게르첸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들은 혁명에 어떤 관심도 없다.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현저히 다른 것이다. 이 점은 제시문 나)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문학작품 읽기를 좋아하는 토니오와는 달리 친구 한스는 실리로 대변되는 문학에 관심이 없으며 말[馬]에 대한 그림보기를 좋아한다. 토니오가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되더라도, 그런 세계에 관심이 없는 한스에게는 토니오의 명성이 무관심의 대상이다. 서로 취향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토니오가 독백한바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다는구나”는 이러한 성향의 차이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두 예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차이에는 역사적 배경과 세대론적 문맥이 개입되어 있다. 한 개인의 취향보다는 특정한 세대가 마주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그 차이를 생성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에서 드러난 차이는 동년배(친구)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 차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롯되는 관심과 기질,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 문맥이 소거되어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포섭될 수 없는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타자를 환대하며 타자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문 가)의 아들과 아버지 세대의 관계에 적용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흔쾌하게 인정하면서, 그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즉 상대방은 내 삶의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의 입장을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상대방, 곧 타자의 존재와의 만남에 의해 각자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타자의 존재, 즉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열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3.**

**2017학년도**

**인문계열 3회차 해설**

---

### [3회차 공통문항]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 월터 리프먼, 「여론」 (까치, 2012 에서 발췌 후 재구성),  
강준만, 「미국사산책 5: 혁신주의와 '재즈시대」 (인물과 사상사, 2010 에서 발췌 후 재구성)**

<가>는 월터 리프먼의 『여론』을 소개하는 두 개의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여론은 실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현실과 허구가 혼재된 유사환경이자 스테레오타입이며 편견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 <나> : 신동준,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형사정책연구, 2012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나>는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국외자에 관한 뒤르켐과 베커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을 지닌 사회집단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국외자로 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다> : 소라미,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 [공변의 변], 에서 발췌 후 재구성)**

<다>는 A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룬 블로그의 글로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A시의 대책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3회차 공통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객관적인 실재를 반영하지 않고 편견에 취약한 여론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점과 외국인을 국외자이자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A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반응과 A시의 차별적인 외국인 범죄 방지 대책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도록 구성되었다.

#### 논제의 구성

본 문항은 세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었다.

<가>는 월터 리프먼의 『여론』을 소개하는 두 개의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여론은 실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현실과 허구가 혼재된 유사환경이자 스테레오타입이며 편견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나>는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국외자에 관한 뒤르켐과 베커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을 지닌 사회집단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국외자로 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는 A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룬 블로그의 글로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A시의 대책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1>은 2015년에 발표된 통계자료로서 외국인 범죄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되었다.

이 문항의 논제는 “<가>와 <나>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에 나타난 A시와 언론의 반응을 비판하시오”( <표 1>을 활용하되, A시의 범죄율은 전국 범죄율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이다.

## [3회차 공통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와 <나> 각각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둘째, <가>와 <나>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있는가?

셋째, <가>와 <나>를 통해 <다>의 상황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는가?

넷째, <표 1>에 나온 통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가?

■ 답안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가>와 <나>의 논지: <가>에 따르면 여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 등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들은 것들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머릿속의 그림이자 유사환경이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여론은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으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편견을 통해 보게끔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나>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통합을 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의 권력자들에 의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일탈자인 국외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나>는 동질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와 구별되는 외국인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국외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가>에서는 여론이 실재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스테레오타입이자 편견일 수 있음을 <나>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사회의 일탈자로 규정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② <가>와 <나>의 통합적 이해: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가>와 <나>를 각각 <다>에서 나타난 언론의 보도태도와 A시의 대응으로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와 <나>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의 문제 상황을 발생시키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외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구성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다시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간주하게끔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다시 외국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킨다.

③ <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가>와 <나>에 의한 비판: <다>에 나타난 언론의 반응은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하나의 살인사건을 외국인 범죄 일반의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고,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범죄 과담들과 외국인 혐오감을 부추기는 글들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A시의 반응은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우범지역으로 간주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A시는 범죄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내국인의 피해만을 고려함으로써 외국인을 더욱 더 우리 사회의 국외자들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④ <표 1>의 적절한 활용: <표 1>은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와 그에 근거한 A시의 대책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통계자료이다. 10만 명당 범죄피의자수로 산출되는 범죄율을 놓고 보면 조사기간 동안 내국인범죄율이 외국인범죄율을 크게 앞지르며, 외국인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는 언론보도와 그에 상응하는 A시의 대책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외국인 범죄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반응이자 대응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공통문항의 취지에 맞게 답안은 내용과 표현 면 모두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는가

둘째, 답안의 내용이 문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셋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이며 언어 사용이 명확한가

넷째, 문장 구성력과 표현력이 좋은가

## [3회차 공통문항] 예시답안

###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여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으로서, 편견이 내재된 정형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한다. <나>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일탈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통합을 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사회집단에 의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일탈자인 국외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동질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와 구분되는 외국인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국외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고착화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스테레오타입은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일탈자이자 범죄자로 간주하게끔 만든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은 대중매체가 외국인 범죄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다루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다>에서 나타난 A시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과 SNS를 포함한 대중매체의 반응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개별적인 사건을 외국인 전체에 의한 범죄행위로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키고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A시의 반응 또한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을 우범 지역으로 공포함으로써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A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A시의 대책 모두 외국인 범죄를 실제보다 과장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의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에 나타난 A시와 언론의 반응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에 근거한 반응이자,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들을 일탈자로 규정하려는 유혹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 [3회차 계열문항]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박희병, 『연암을 읽는다』 (박희병, 돌베개, 2006, p.383-399)**

제시문 <가>는 박지원(1737-1805)의 「공작관문고자서(孔雀館文稿自序)」를 옮긴 것이다. 현대어 번역은 박희병 교수의 『연암을 읽는다』(박희병, 돌베개, 2006, 383-399면)를 따랐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글을 쓰는 자세에 대해 논하고 있다. 글이란 것은 진실해야 하며, 진실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소재나 표현 방식을 쓴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박지원의 창작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명과 코골이에 대한 비유가 퍽 인상적이다.

이명이란 “내 귀에는 분명히 들리는데 남의 귀에는 안 들리는 현상”이다. 박지원은 이 상황을 “창작자에게는 분명히 감지되지만 독자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현상”과 연결 짓고 있다. 코골이란 “남은 분명히 듣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현상”이다. 박지원은 이 상황을 “독자들에게는 다양한 의미로 들리는데 창작자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과 연관 짓고 있다. 이 두 에피소드를 통하여 창작자의 표현의 어려움과, 독자 비평의 자립성을 존중하고자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실한 글’을 매개로 작자와 독자가 서로 소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글이라 하겠다.

**제시문 <나> : 정재승 교수, 『과학콘서트』 (어크로스, 2011, p.93-108)**

제시문 <나>는 정재승 교수의 『과학콘서트』(어크로스, 2011, 93-108면.)에 수록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그림에 관한 에피소드를 옮긴 것이다. 폴록은 자신이 감지한 어떤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평은 냉담했다. 그들은 폴록의 그림을 “무질서한 카오스”라고만 여긴다. 그러나 그의 꾸준한 작품 활동, 그리고 비평에 대한 반박 글을 볼 때, 그는 어떤 질서를 감지한 것이 분명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과학자들은 폴록의 그림에서 어떤 질서를 포착한다. 카오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그림 속에는 프랙털 구조가 내재하고 있음을 본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박지원이 말한 이명과 흡사한 점이 있다. ‘무언가를 들었으나 남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명의 상황’과 ‘무언가를 표현하였으나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폴록의 상황’은 동일한 상황에 다름 아니다.

**제시문 <다> : 『중앙일보』 (2009.11.21. 인터뷰 기사 중)**

제시문 <다>는 한 때 회자되었던, 어떤 시인의 쓴소리를 옮긴 것이다. 해당 기사는 『중앙일보』(2009년 11월 21일)에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화되어 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수능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되는 시인의 시(詩)가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 시인이 ‘참 미스터리한 일’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 교육청이 출제한 해당 작품의 문제에 대한 시인의 답과 교육청의 답을 비교할 수 있게끔 소개하여 두고 있다.

문학작품이 창작자의 손을 떠나면 그 후로는 독자적 자생력을 지니는 것으로 흔히 간주된다. 그렇기에 창작자는 언제나 독자의 비평과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이려는 태도를 지닌다. 그런데 인터뷰의 시인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남의 지적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에만 관심을 보여준다. “내가 쓴 글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작품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층적 의미가 놓여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의미를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작품의 의미를 추출하는 행위 또한 또 다른 작품의 향유 양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코골이를 통하여 작품은 다양한 소리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독자가 들은 것을 “너는 이러이러한 소리를 내며 코를 골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에 대해 펄쩍 뛰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코골이 상황은 위의 시인을 연상시킨다. 작품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작품을 읽고 어떤 의미를 포착했는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완고히 부정하는 것과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회차 계열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

- 글에 나타난 비유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고자 함.
- 이 비유가 실질 현장 즉, 창작자와 비평가들의 소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고자 함.

### 논제의 구성

이명과 코골이가 비유하는 바를 포착하고 있는가, 이를 제시문 <나>와 <다>에 연관시킬 수 있는가, 연관의 과정이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묻고자 했다.

이명이 비유하는 바는 “내게는 들리는데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창작물로 환원하자면 “창작자에게는 감지되는데 독자(비평가)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현상”이다. 코골이가 비유하는 바는 “남에게는 들리는데 내게는 들리지 않는 것”, 창작물로 환원하자면 “독자(비평가)에게는 감지되는데 창작자 자신은 감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명은 제시문 <나>와 연관된다. 풀록은 어떤 질서를 감지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독자(비평가)의 평가는 냉정했다. 그의 작품은 그저 카오스(무질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풀록이 의도한 바를 읽지 못해 생겨난 평가일 뿐, 풀록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후의 과학자들이 그가 본 것을 결국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풀록의 상황은 이명증을 앓은 아이와 유사하다. 아마 풀록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니,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답답하도다.” 이 말은 바로 이명증을 앓던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코골이는 제시문 <다>와 연관된다. 독자는 시인의 시에 어떤 의미가 흐르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나름의 판단에 따라 시를 재해석한다. 그러나 그 해석을 들은 시인은 그런 비평을 부인한다. 그것은 자기의 의도가 아니며, 자신의 의도가 아닌 것을 어떻게 남들이 더 잘 아는 것인지 미스터리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반응은 코골이와 연관된다. 코고는 소리는 남들은 듣고 정작 코를 고는 자기는 듣지 못하는 것인데, 독자들은 다 보는 것을 자신이 보지 못했다며 화를 내는 것은 박지원의 일화 속 인물 ‘코골이’와 흡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이명을 시인의 경우에, 코골이를 풀록의 경우에 연결해서는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다. 얼핏 보면 가능할 듯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다 보면 이 둘의 어긋남은 큼을 알게 된다. 우선, 이명과 코골이 모두 창작자는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풀록이나 시인 모두와 연관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명은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점에서 [다]지문의 시인과 교육청과의 갈등과 연관 지을 수 없다. 시인의 의도가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떤 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교육청이 듣고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에게 들리지 않는 이명 증세와 관련짓기 어렵게 된다. 남에게 들리는 것이기에 이는 코골이인 것이다. 그 소리를 정당히 지적하자 화를 낸 것 또한 코골이의 속성에 그대로 부합한다.

한편, 코골이는 남에게 구체적인 어떤 소리를 들리게 한다는 점에서 풀록의 경우와 연관 지을 수 없다. 풀록의 비평가들이 한 것은 풀록의 어떤 소리를 듣고 낸 반응이 아니다. 비평가들의 반응, 난해하다, 질서가 없다 등은 풀록의 소리를 듣고 의도를 나름대로 이해하여 재구성한 결과가 아니라 풀록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게 무엇이야? 너는 무슨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 않느냐?’라는 반응일 뿐이다. 코골이와 연관되려면, 비평가들이 풀록의 그림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포착하고 그것에 대해 조목조목 합리적인 비평을 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 제기에 풀록의 완고한 부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글에 나타난 ‘무질서하다(비평가) ↔ 질서가 있다(풀록)’의 갈등은 비평가들이 풀록의 의도를 나름의 시각으로 포착하여 해석한 결과가 아닌, 풀록의 의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명 상황에 대응되는 것이다. 어렵듯하게 자연의 질서를 감지했던 것이 나중에 과학자들에 의해 해명된 것은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는 아주 빼어난 비평가가 나타났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지원의 글 마지막에 있는 ‘이명은 듣지 못할지라도’란 말에는 언젠가는 자신의 의도를 알아주는 이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말인데, 과학자들의 분석은 그것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의 서문에 흔히 쓰는 ‘언젠가 눈 밝은 이가 나타나 이 글의 속뜻을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는 문장 등과 같은 의도라 볼 수 있다.

다시 요약하면, ‘창작자의 의도가 속에서만 울리고 타인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이명이라 하고, 밖으로 나온 창작자의 소리가 독자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구체적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을 창작자가 부인하는 경우를 코골이라 한다.’가 된다.

## [3회차 계열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 제시문 <가>에 나타난 이명과 코골이 상황이 비유하는 바를 포착하고 있는가?
- 이명을 제시문 <나>에, 코골이를 제시문 <다>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 제시문 <나>에서 이명의 속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 제시문 <다>에서 코골이의 속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 정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장이 정확하고, 단락이 적절한가?

## [3회차 계열문항] 예시답안

### 예시 답안

이명은 자신은 어떤 사실을 알지만 남은 모르는 상황, 코골이는 남은 어떤 사실을 알지만 자신은 모르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즉, 작자가 어떤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나 독자들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명이란 병에 빗댄 것이고, 작자가 표현한 어떤 생각의 잘못,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독자가 발견하여 지적함에도 그 지적에 대해 완고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코골이에 빗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이명은 제시문 <나>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풀록의 그림은 풀록의 영감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내재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 비평가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의 그림은 그저 '무질서'일 뿐이라고 평한다. 이 상황은 피리소리 같기도 하고 별처럼 둥글둥글하기도 한 어떤 소리를 남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가>의 아이와 흡사하다. 즉, 내게는 들리는 것이 남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코골이는 제시문 <다>의 상황과 닮았다. 코를 고는 소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들리듯이, 시 또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시는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지만, 자신도 모르는 다른 면모의 소리가 그 시에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소리는 시인은 듣지 못할 수 있지만, 독자나 비평가는 들을 때가 있다. 모의 문제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시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독자의 눈에는 분명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의 갑갑함이 읽힌다. 그 점에서 볼 때 시인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부정한 '물고기가 유리벽에 자주 부딪치는 장면'은, 남들이 보기엔 오히려 시적 흐름에 딱 잘 어울리는 장면이다. 결국 자신의 작품에서 남들이 들은 어떤 소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완고히 말하는 코골이와 닮은 점이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 두 사례는 창작자가 지닌 의도가 비평가(독자)에게 전달되기 어렵고, 비평가(독자)의 지적이 창작자에게 수용되기 어려운 '소통의 어려움'을 겨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2017학년도**

**자연계열 해설**

---

## [공통문항]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개마고원, 2013, p.239 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 : 에드워드 로이스,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명태, 2015, p.448 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다> : Raymond Fisman, et al., “The distributional preferences of an elite”  
(Sicence , 2015, p.7 에서 발췌 후 재구성)

## [공통문항] 출제의도

### 출제 의도

본 문항은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상반된 관점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실증적 자료와의 상호관련성 하에서 심화하여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논제를 구성하였다. 보통 우리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지만, 정부와 기업의 정책 등과 관련된 '구조적 원인'이 '빈곤'을 고착화하고 심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권력층인 엘리트들은 이러한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평등성보다 효율성 중심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본 문항에서 <제시문>은 이와 관련된 세 편의 글로 구성되었다.

<가>는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글이고, 이와 반대로 <나>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 구조에 빈곤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조적 책임'을 강조하는 글이다. 그리고 <다>는 엘리트의 분배적 선호를 통해 평등성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권력층의 정책결정 성향을 알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이다.

# [공통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가>에 나타난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이 관점을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이 문항에 대해 적절하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①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파업하는 노동자, 수능점수와 입학 대학, 취업준비, 자기계발 등의 사례들을 문항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이해하였는가
- ② <나>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빈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기업과 정부의 정책, 선거와 정치 제도 등에 관한 사례들을 문항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이해하였는가
- ③ <다>의 내용([그림] 포함)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글의 내용을 [그림]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공정심과 이기심의 교환관계'와 '평등성과 효율성 중심 성향의 교환관계'의 상호관련성을 문항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엘리트의 분배적 선호를 통해 권력층의 정책결정 성향이 어떠한지를 문항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④ <나>의 관점에서 <다>를 활용하여 <가>에 나타난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절하게 비판하였는가

또한, 공통문항의 취지에 맞게 답안은 내용과 표현 면 모두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 첫째,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는가
- 둘째, 답안의 내용이 문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 셋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이며 언어 사용이 명확한가
- 넷째, 문장 구성력과 표현력이 좋은가

## [공통문항] 예시답안

### 예시 답안

<가>의 이십대 대학생들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동자에게 느끼는 연민의 감정과는 별개로 그들이 받는 낮은 처우는 능력 부족 때문이기에 그 이상의 요구는 정당하지 못하며, 수능점수와 입학대학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이므로 그로 인한 차별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추해 보면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낮은 인지능력, 노력 부족, 생산성 낮은 인적자본 때문에 구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얻더라도 저임금의 직업을 얻게 된다. '자기계발'에 그들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믿음도 이십대 대학생들이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보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나>는 개인보다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빈곤의 원인이 있다는 '구조적 책임'을 주장한다. 정규직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세계화와 경기상황, 기업의 경영정책, 고용주의 태도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이런 외부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지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는 정치제도와 권력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자본, 자유, 분권을 기조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는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고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계층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구조적 관점은 빈곤과 권력의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치적·경제적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권력층이기 때문이다. <다>에 나타난 엘리트의 분배적 선호를 통해 권력층의 정책결정 성향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예일 로스쿨 학생이 미국 평균시민에 비해 이기적이고, 평등성보다 효율성 중심의 성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속한 부유층을 위한 이기적 정책을 펼치게 된다. 효율성 추구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를 저해하고, 효율성 달성으로 얻은 경제적 파이를 저소득층과 나누는 복지에는 소극적이다. 따라서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고착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 [계열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수준의 수리능력을 지닌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 2개를 선정하여 그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하였다. 이번 논술 시험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리논술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따라 교과지식의 단독 반복학습과 암기를 통해 습득된 지식을 통해 문제를 풀기 보다는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리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검토요원으로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등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 논제의 구성

제시문 <가>는 먼저 극장에  $n$ 명의 관객과  $n$ 개의 좌석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첫 번째 관객은 극장표를 잃어버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 임의로 자리를 선택해서 앉기로 하고, 두 번째 관객부터는 자신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이미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임의로 다른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다고 할 때,  $n$ 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첫 두 명의 관객이 극장표를 잃어버려 그 둘은 차례로 자리를 임의로 선택해서 앉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이미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임의로 다른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다고 할 때, 제일 마지막 관객이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은 관객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 <나>는 극장을 옆에서 본 단면을 생각했을 때, 극장에서 스크린이 가장 크게 보이는 좌석을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 2-1>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된, 첫 두 명의 관객이 극장표를 잃어버린 경우에 대해 제일 마지막 관객이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은 관객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관객의 수가 100명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 2-2(a)>는 제시문 <나>에서 언급된 극장에서 스크린이 가장 크게 보이는 위치를 구하고, 그 점과 스크린을 나타내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극장의 바닥모양을 나타내는 직선에 서로 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 2-2(b)>는 제시문 <나>의 지문을 입체인 경우로 확장하여 원형으로 배치된 좌석들 중에서 스크린의 대각선이 가장 크게 보이는 곳을 찾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 [계열문항] 채점기준

### 답안 구성요소

확률은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에 대하여 공부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확률은 일기예보, 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함수, 미분, 도형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항들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확률, 극대극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좌표공간에 대한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계열문항] 예시답안

### 예시 답안

#### ■ 2-1

편의상  $n$  명의 관객을  $A_1, A_2, \dots, A_n$ 이라 하고 이들의 극장표에 적혀있는 좌석을 각각  $S_1, S_2, \dots, S_n$ 이라 하자. 그리고 마지막  $n$ 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을  $b_n$ 이라 하자. 먼저  $n=3$ 일 때 그 확률  $b_3$ 을 구해보자. 3자리 중에서  $A_1, A_2$ 가 임의로 앉을 경우의 수는  ${}_3P_2 = 6$ 이고,  $A_3$ 가 자신의 자리  $S_3$ 에 앉기 위해서는  $A_1$ 과  $A_2$ 가 각각 자신의 자리에 앉거나 서로 바꿔 앉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므로  $b_3 = \frac{1}{3}$ 이 된다.

이제 모든 자연수  $n \geq 3$ 에 대하여  $b_{n+1} = b_n$ 임을 보이자. 즉, 마지막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은 관객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이자. 관객의 수가  $(n+1)$ 명이라 하고, (i)  $A_1$ 이  $S_3$ 을 선택한 경우, (ii)  $A_1$ 이  $S_3$ 을 선택하지 않고  $A_2$ 가  $S_3$ 을 선택한 경우, (iii)  $A_1$ 과  $A_2$ 가 모두  $S_3$ 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i)  $A_1$ 이  $S_3$ 을 선택한 경우:

이 경우는 세 번째 관객  $A_3$ 은 임의로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A_1$ 은 제외하고  $A_2$ 와  $A_3$ 을 각각 새로운 첫 번째 두 번째 관객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관객이  $n$ 명 있을 때와 상황이 같아진다. 따라서  $A_1$ 이  $S_3$ 을 선택하고  $A_{n+1}$ 이  $S_{n+1}$ 에 앉을 확률은  $\frac{1}{n+1}b_n$ 이다.

(ii)  $A_1$ 이  $S_3$ 을 선택하지 않고  $A_2$ 가  $S_3$ 을 선택한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관객  $A_3$ 은 임의로 자리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A_2$ 를 제외하고  $A_1$ 과  $A_3$ 을 각각 새로운 첫 번째 두 번째 관객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관객이  $n$ 명 있을 때와 상황이 같아진다. 따라서  $A_1$ 은  $S_3$ 을 선택하지 않고  $A_2$ 는  $S_3$ 을 선택하며  $A_{n+1}$ 이  $S_{n+1}$ 에 앉을 확률은  $\left(\frac{n}{n+1}\right)\left(\frac{1}{n}\right)b_n$ 이다.

(iii)  $A_1$ 과  $A_2$ 가 모두  $S_3$ 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A_3$ 은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게 되므로  $A_3$ 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관객이  $n$ 명 있을 때와 상황이 같아진다. 따라서  $A_1$ 과  $A_2$ 가 모두  $S_3$ 을 선택하지 않고  $A_{n+1}$ 이  $S_{n+1}$ 에 앉을 확률은  $\left(\frac{n}{n+1}\right)\left(\frac{n-1}{n}\right)b_n$ 이다.

따라서 확률  $b_{n+1}$ 을 구하면

$$b_{n+1} = \left(\frac{1}{n+1}\right)b_n + \left(\frac{n}{n+1}\right)\left(\frac{1}{n}\right)b_n + \left(\frac{n}{n+1}\right)\left(\frac{n-1}{n}\right)b_n = b_n$$

이다. 그러므로 관객 100명이 있을 때 100번째 관객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은

$$b_{100} = b_{99} = \dots = b_3 = \frac{1}{3}$$

이다.

■ 2-2(a)

제시문 <나>에서  $\tan \alpha = \frac{3 - \frac{x}{2}}{x}$ ,  $\tan \beta = \frac{1 - \frac{x}{2}}{x}$  이고, 따라서

$$\tan \theta = \tan(\alpha - \beta) = \frac{\tan \alpha - \tan \beta}{1 + \tan \alpha \tan \beta} = \frac{\frac{3 - \frac{x}{2}}{x} - \frac{1 - \frac{x}{2}}{x}}{1 + \frac{(3 - \frac{x}{2})(1 - \frac{x}{2})}{x^2}} = \frac{8x}{5x^2 - 8x + 12}$$

이다. 여기서  $\tan \theta$ 는  $\theta \in [0, \pi/2)$ 에서 증가하므로 함수  $f(x) = \frac{8x}{5x^2 - 8x + 12}$ 가 최댓값을 갖는  $x$ 를 구하면 이  $x$ 가 점 O에서 각  $\angle APB$ 가 최대가 되는 양의  $x$ 축 위의 점 P의  $x$ 좌표이다. 한편,

$$f'(x) = \frac{-8(5x^2 - 12)}{(5x^2 - 8x + 12)^2} = 0$$

이면  $x^2 = \frac{12}{5}$ 이므로  $x$ 는  $\sqrt{\frac{12}{5}}$ 이다. 즉, 점 P의 좌표는  $\left(\sqrt{\frac{12}{5}}, \frac{1}{2}\sqrt{\frac{12}{5}}\right)$ 이다.

이제 A(0, 1), B(0, 3), P $\left(\sqrt{\frac{12}{5}}, \frac{1}{2}\sqrt{\frac{12}{5}}\right)$ 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x^2 + y^2 + ax + by + c = 0$$

이라 하자. 이 원은 A(0, 1), B(0, 3)을 지나므로

$$1 + b + c = 0, \quad 9 + 3b + c = 0 \Rightarrow b = -4, \quad c = 3$$

이고 원의 방정식은  $x^2 + y^2 + ax - 4y + 3 = 0$ 이 된다. 또한 점 P $\left(\sqrt{\frac{12}{5}}, \frac{1}{2}\sqrt{\frac{12}{5}}\right)$ 를 지나므로

$$\frac{12}{5} + \frac{12}{20} + \sqrt{\frac{12}{5}}a - 2\sqrt{\frac{12}{5}} + 3 = 0 \Rightarrow \sqrt{\frac{12}{5}}a - 2\sqrt{\frac{12}{5}} + 6 = 0$$

$$\Rightarrow a = 2 - \sqrt{15}$$

이고,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2 + y^2 + (2 - \sqrt{15})x - 4y + 3 = 0$$

이다. 이제  $y = \frac{x}{2}$ 를 대입하면

$$\frac{5}{4}x^2 - \sqrt{15}x + 3 = 0$$

이고 이 방정식의 판별식은  $D = 15 - 4 \cdot \frac{5}{4} \cdot 3 = 0$ 이므로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은 직선  $y = \frac{x}{2}$ 에 접한다.

<다른 풀이>

위의 풀이로부터 함수  $f(x) = \frac{8x}{5x^2 - 8x + 12}$ 가 최댓값을 갖는  $x$ 를 구하면 이  $x$ 가 점 O에서 각  $\angle APB$ 가 최대가 되는 양의  $x$ 축 위의 점 P의  $x$ 좌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f(x) = \frac{8x}{5x^2 - 8x + 12} = \frac{8}{5x - 8 + \frac{12}{x}}$$

에서  $x > 0$ 임을 이용하여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면  $5x + \frac{12}{x} \geq 4\sqrt{15}$  이므로

$$f(x) \leq \frac{8}{4\sqrt{15} - 8}$$

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등호는  $5x = \frac{12}{x}$ , 즉  $x = \sqrt{\frac{12}{5}}$  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left(\sqrt{\frac{12}{5}}, \frac{1}{2}\sqrt{\frac{12}{5}}\right)$ 이다.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  $x^2 + y^2 + (2 - \sqrt{15})x - 4y + 3 = 0$ 과 직선  $y = \frac{x}{2}$ 이 서로 접함도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원의 중심이  $\left(-1 + \frac{\sqrt{15}}{2}, 2\right)$ 이고 반지름이  $\sqrt{\frac{23}{4} - \sqrt{15}}$ 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음 둘 중 하나를 보이면 증명이 끝난다.

(1) 원의 중심  $\left(-1 + \frac{\sqrt{15}}{2}, 2\right)$ 에서 직선  $y = \frac{x}{2}$ 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sqrt{\frac{23}{4} - \sqrt{15}}$ 와 같다.

(2) 원의 중심과 점 P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2$ 이므로 이 직선은  $y = \frac{x}{2}$ 와 점 P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 ■ 2-2(b)

두 벡터  $\overrightarrow{PA} = (-x, -2-y, 1)$ ,  $\overrightarrow{PB} = (-x, 2-y, -1)$ 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theta$ 이므로

$$\cos \theta = \frac{\overrightarrow{PA} \cdot \overrightarrow{PB}}{|\overrightarrow{PA}| |\overrightarrow{PB}|} = \frac{x^2 - (4-y^2) - 1}{\sqrt{x^2 + (2+y)^2 + 1} \sqrt{x^2 + (2-y)^2 + 1}}$$

이다. 이제  $x^2 = 16 - y^2$ 이므로

$$\cos \theta = \frac{11}{\sqrt{21+4y} \sqrt{21-4y}}$$

이다. 함수  $y = \cos \theta$ 는 구간  $\left(0, \frac{\pi}{2}\right)$ 에서 감소하므로  $f(y) = -16y^2 + 441$ 이 최댓값을 갖는  $y$ 에서 각  $\theta$ 가 최대가 된다. 따라서  $y = 0$ 일 때, 각  $\theta$ 가 최대가 되며  $x^2 = 16 - y^2$ 이고  $x > 0$ 이므로  $x = 4$ 이다. 즉 구하는 점 P의 좌표는  $(4, 0, 0)$ 이다.

<참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만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하여  $\cos \theta$ 를 구할 수도 있다.

$$\begin{aligned} |\overline{PA}| &= \sqrt{x^2 + (2+y)^2 + 1}, \\ |\overline{PB}| &= \sqrt{x^2 + (2-y)^2 + 1}, \\ |\overline{AB}| &= \sqrt{20} \end{aligned}$$

이므로

$$\cos \theta = \frac{|\overline{PA}|^2 + |\overline{PB}|^2 - |\overline{AB}|^2}{2|\overline{PA}||\overline{PB}|} = \frac{2x^2 + 2y^2 - 10}{2\sqrt{(x^2 + y^2 + 5)^2 - 16y^2}}$$

---

이다. 이제

$x^2 + y^2 = 16$  임을 이용하면

$$\cos \theta = \frac{11}{\sqrt{21^2 - 16y^2}}$$

을 얻는다.

---